

# 삶의 단상-강근숙

일상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무게와 인간으로서 보여지는 삶의 단면을 보여 주고 싶다.

- 영원
- 기대지 마시오
- 봄날
- 가슴으로 살자
- 살촉에게 묻다
- 거리에 앉은 남자
- 물 속에 꽃
- 술 속에 꽃
- 줄 위에 서다
- 요란한 봄날

# 영원



현재귀하계좌의잔액은영원입니다

찾으실수있는금액은영원입니다

혹시나 하고 두드린 번호판 뒤에서

들려오는 안내 멘트

도시의 뒷골목에는

무서운 가난이 숨어있다

날 바뀌고 달 기울면

끈질긴 추적자 바싹 따라붙어

발목을 잡는 사슬

위급한 상황 꼬리 끊고 달아나는 도마뱀-

지금 나는,

한 마리 파충류 되어

꼬리 똑 잘라내고

숫자 없는 세상으로 달아나고 싶다

# 기대지 마시오



기대지 마시오

기대지 마시오

문산에서 도라산 오가는 열차 문에

나란히 서 있는 글씨

아무리 봐도 내겐,

기대하지 마시오

기대하지 마시오 한다

내 고단할 때 기대어 쉬고 싶은

나무 한 그루 없어도

내일을 붙잡고 기대하며 살았다

기대하다 잃어버린 그 많은 소망들

기대하지 마시오, 기대하지 마시오 한다

기대면 기댈수록 혼자 서지 못하고

기대하면 할수록 돌아오는 날 뜨거움

달려가는 세월이,

기대지 말고

기대하지 말고

쫓쫓이 가라 한다

# 봄날

묶인 발 풀고 나온

연하디연한 몸짓

연초록 사연을 흘린다

흠내음 그득한 뜰에

더운 입김으로 돌아난

목숨

숨겨둔 말들 안으로만 삭히며

모진 세월 속에

더 푸르른 소망 하나

파릇한 새싹 틈울 때까지

얼마나 많이 아파했는지

지난겨울 설한풍에

죽은 듯이 숨죽이며

마디마디 저린 이야기를

당신은 알까

# 가슴으로 살자

시끄러운 세상

보고 듣고 싶지 않아

머리 떼어 버리고

천년 세월 가슴으로 사는

목 없는 부처님

말로선 다할 수 없는 사연

깊은 정적 묻어놓고

가지산 자락 좌대 삼아

무겁게 눌러앉은 마음

보고 듣고 말하면서

무명 속에 지은 죄,

다시 죄지을 것 같은

머리 떼어 징검다리 놓고

가슴으로

가슴으로 살자

# 살촉에게 묻다

비 개인 가을 날

영집 궁시박물관 트랙에

아득한 시대에서 말 달려온 궁사들

주몽의 후예임을 증명이라도 하듯

과녁을 향해 살을 먹인다

쭈손은 태산을 밀치듯이 강하게 밀어내고

각지 손은 범의 꼬리를 놓지 않으려는 듯

화살을 먹여 쥔 양손을 들어 올린다

손을 풀어 보내야 하는 순간

짧은 입맞춤하고

바람을 가르며 날아가는 살-

후회 없는가

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

사랑하는가

미련 없이 떠나보낸

궁사의 가슴





# 거리에 앉은 남자

사람들이 길 비켜주는

송례문 앞 삼성프라자 건물 아래

한 남자가 비스듬히 누웠듯 앉아 있다

언제나 그 자리, 복데기 단 같은 모습

싱싱한 삶의 바다에서 밀려 나온 그가

할 수 있는 것은,

빙빙 돌아가는 네거리에서 도인처럼

누더기 걸치고 앉아 길을 찾는 일이다

동전 한 닢 던지는 이 없는 차가운 거리

아무리 둘러봐도 빈 손바닥

한때는 빌딩 숲 어느 뼈대였을 그 남자

파카 잠바 누비바지 겹겹이 껴입고도

등이 시린 세상

복달임하는 염천 대낮

거리에 앉은 남자는 춥다

춥기만하다

# 물 속에 꽃

저문 하루

벽초지 수목원

연산홍이 활활 타고 있다

그 누구의 열화인가

저리 타는 불사름

파문 없는 호수

세월 비켜선 바위, 그 아래

찢레 순 꺾어 목축이다

타는 갈증

물속에 던진 사랑

호수에 번진 꽃물

# 술 속에 꽃

질척이는 오후

손금 따라 걷다가, 길 위에서

맨몸으로 만난 그대

솔직하고 입 무겁고 속 넓은 그대와

눈 맞아 정분났네

변함없는 열정

십수 년 몸을 섞어

중독된 사랑

차마,

버리지 못한 꿈 한 조각 끌어안고

독한 사랑에 빠진

붉은 꽃 한 송이

# 줄 위에 서다

다른 길은 없다

잡을 것 하나 없는 외줄 위에 올라서서

중심을 잡느라 숨 고르는 남사당

앞은 구만리 발아래 아찔하다

어차피 가야하는

인생은 외줄타기

하늘 끝 그리움 세워놓고

긱거리장단 쿵-덕, 줄 위에 얹어

새 처 럼 팔 을 펼 친 다

한 손에 부채 들고 또 한 손엔 허공 잡고

한 발짝 옮길 때마다

등줄기 흐르는 식은땀

뉘라서 알리

수없이 떨어져 멍들고 깨진 상처

아픔도 익숙해진 흔들리는 바람 속

오늘도 외출타기

앞만 보고 간다

중심을 잡느라 숨 고르는 남사당

앞은 구만리 발아래 아찔하다

어차피 가야하는

인생은 외출타기

하늘 끝 그리움 세워놓고

곳거리장단 쿵-덕, 줄 위에 얹어

새 처 럼 팔 을 펼 친 다

한 손에 부채 들고 또 한 손엔 허공 잡고

한 발짝 옮길 때마다

등줄기 흐르는 식은땀

뉘라서 알리

수없이 떨어져 멍들고 깨진 상처

아픔도 익숙해진 흔들리는 바람 속

오늘도 외출타기

앞만 보고 간다

# 요란한 봄날

-강근숙-



시린 땅 뚫고 나와

햇살에 앉은 연둣빛 꼬맹이들

개나리 목련 진달래 벚꽃

흐드러진 사월은

내가 가장 좋아하는 생명의 계절

삼시간에 먹장구름 몰려와

우박 뿌리고

눈보라 휘몰아친다

118년 만의 이상 기후

땅 꺼지고, 파도가 일어설 때

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고

명당 찾아 둥지 튼 번쩍이는 금배지

너도나도 용상은 내 자리라고--

목청 높이는 야·단·법·석

여의도 벚꽃이 배를 잡고 웃는다